

전남 중부권

나주배 ‘저질 꽃가루’ 주의보

밀수입돼 관리상태 엉망... 발아율 20%도 못미쳐

배 주산지인 나주지역에 제대로 검 증이 안 된 ‘인공 수분용’ 배 꽃가루가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어 농가들의 피해 우려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나주지역 배 과수농가들에 따르면 배꽃 개화기를 20여일 앞두고 중국에서 밀수입된 인공수분용 꽃가루가 점조직을 통해 농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이 꽃가루는 보따리상들이 인천항이나 평택항 등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정상적인 통관과 검역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밀수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병동상태의 운반이나 방습(防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인공수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발아율(發芽率)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꽃가루를 사용할 경우 자가수정(自家受精)이 불가능해 한해 농사를 망치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밀수 꽃가루 판매상은 현재 나주지역에서만 6~7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일부 농약사들이 밀수된 꽃가루를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를 비롯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입관장을 위조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량을 들여온 뒤 이를 근거로 밀수된 꽃가루를 대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K(54·나주시 왕곡면)씨는 “농가들이 밀수 여부를 알지 못할 뿐더러 품질마저 구분할 수 없어 밀수된 상당 물량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며 “미검역 등으로 식물에 치명적인 병해충 유입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봄맞이 집안장 해오”

강진군 움천면 한 야산에 왜가리들이 등지를 단장하느라 나뭇가지를 물어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뒷새인 왜가리는 눈에서 뒷머리까지 이어지는 검은 줄과 덩기깃이 특징이다. <강진군 제공>

훼손 논란 ‘담양습지’ 보존 합의

담양군-익산국도청 대체 대숲 조성키로

영산강살리기 8공구 추진중 훼손 논란이 일었던 담양습지 보존 합의안이 도출됐다.

담양군과 익산 지방국도관리청은 최근 영산강 살리기 8공구 등은 습지 내 대나무숲이 조성된 호안(護岸)을 100m가량 제거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기존 숲 2만6800㎡의 절반 가량인 1만4300㎡ 규모의 대체 대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익산청은 호안을 50m가량 없애고 대나무 3000그루를 옮겨 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빠른 유속 등을 고려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100m를 없애는 대신 1만4000 그루를 이식하

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안이 일부 환경단체의 습지보존 요구와 주민들의 민원을 모두 불식시킬지는 미지수이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람사르 협약으로 습지 지정이 된 것도 대숲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습지 보존의 제1원칙은 ‘절대 보존’인데 대나무를 베어내 벌채 새들의 50%가 서식처를 잃었다”며 “합의안은 대나무 그루 수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습지 보존 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수성당·각자장 이지도·야장 김정옥씨

강진 향토문화유산 지정

강진군은 최근 향토문화유산 심의 위원회를 열고 강진 수성당과 각자장(刻字匠) 이지도(군동면 화방마을) 씨, 야장(冶匠) 김정옥(칠량면 영동리)씨를 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강진읍 남성리에 위치한 강진 수성당은 목조 기와로 된 4칸 팔작지붕인 전통한옥으로 강진 최초 노인당이며, 동학유적지, 독립운동의 후원처이기도 했다. 1885년 건축돼 1894년 동학혁명 때 소실됐으나, 1902년 4월에 수성경로당으로 설립된 후 1936년 2월에 중창되며 옛 모습을 되찾았다.

이지도(금강산원 주지) 각자장은 철재 오목진(국가중요 무형문화재

제106호) 선생의 사사를 받았으며 경북 김천 직지사 일주문 현판을 비롯해 많은 작품을 제작했다.

지난 1962년부터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옥 야장은 흙미·닷 등 농기구를 전통방식인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 오고 있는 강진판대 유일한 대장장이이다.

강진군 윤순화 문화관광팀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해 매년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남도 답사 1번지’ 강진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돌보기 무료 맞춤 증명 농어촌공 영암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하상수)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돌보기 증명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영암지사는 최근 영암읍 송평리를 시작으로 60대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돌보기 무료맞춤 증명(브라이트-KRC)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영암지사는 참여한 농업인 대상 소규모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과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사업 등을 홍보했다. ‘브라이트-KRC운동’은 농·어촌지역의 고령 농·어업인들에게 맞춤 돌보기를 무료로 증명하는 것이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성기자 moon@

장흥~화순간 지방도 유치 구간 연내 개통

장흥 유치~화순 이양간 지방도 일부 구간이 올해내 개통된다.

21일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광주~장흥간 직선화도로인 지방도 820, 839호선의 구간 가운데 교통사고 다발 등 위험지역인 유치구간이 올 연말 안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장흥 유치면 읍문 3거리에서 장평면 봉림 3거리(총 3km) 구간을 채우 부담금 100여만원을 포함, 총 300여만원을 들여 연내에 개통시킬 계획이다.

이 가운데 820호선 선형이 급경사지와 협곡인 유치면 가지산터널 구

간은 일반 발파와 절토(切土) 작업과 함께 환경구조물 등을 세우는 ‘복개터널(일명 개착터널) 공법’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와 군은 다음달 1일부터 개통하는 올 12월 말까지 이 구간을 통제해 모든 차량을 보성과 나주 방면으로 우회시킨다.

한편 화순 이양에서 장흥 유치 읍문 삼거리까지 총 17.4km에 이르는 지방도 839, 820호선 4차선 확장포장 공사는 오는 2013년말 개통으로 지난 2006년에 착공, 현재 23% 공정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전북

“맛집, 내 손안에 있소이다”

도, 스마트폰 앱 개발 21일부터 서비스

스마트 폰을 활용해 전북의 맛집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최근 머무르는 관광지로서 전북을 홍보하기 위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 ‘전북 맛집’ 스마트폰 앱을 개발, 2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북 맛집’ 앱은 전북 14개 시·군의 향토음식점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GPS 기능을 활용한 음식점 찾아가기 ▲증강현실(AR기법)을 이용한 주변 음식점 찾기 ▲맛집 방문 후기 작성 ▲일반인들의 맛집 추천을 위한 맛집 카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 맛집’ 스마트폰 서비스는 전북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1인 창조기

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산·학·관 공동협력 사업으로 운영중인 전북대 앱 창작센터와 전주대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의 추천을 받아 개발자를 선정, 3개월간의 개발기간과 시험운영을 거쳤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험운영기간에도 2000여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는 등 음식 마니아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전북 맛집’ 스마트폰 앱 보급으로 오감을 즐기는 전북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문화관광·민생·복지·일자리·도정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스마트폰 앱과 모바일 홈페이지의 개발을 추진중이다.

／전북취재본부=김승철기자 k0765@

김제 벽성대 ‘지방대 활성화’ 세미나

김제 벽성대학(총장 유재경)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는 공동으로 지난 18일 ‘한국교육의 실태와 지방대학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유정현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교육분과 위원, 이천시 김제시장, 유충렬 새전북 희망포럼대표, 지역대학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합술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교육분과 수석부위원장의 추사와 유재경 총장의 ‘한국교육의 실태와 지방대학의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 교육분과 위원들의 활발한 토의 등 순으로 이어졌다.

유충렬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적인 교육실태와 지방대학의 애로점·문제점 등을 열거하며 정부

의 역할부담에서 학교의 경영자가 정상적인 최소한의 경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영권 환원’을 역설했다.

또한 지방대학의 활성화방안으로 ▲교육의 기본적 기능 회복 ▲학교의 자구노력 ▲지방 시범대학 선정 등을 들었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 이재창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부처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지방대학 활성화에 대한 의제가 성공적인 정책수립으로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재경 총장은 “앞으로의 과제로 공교육 제도라는 틀에서 만들어내는 획일화된 교육탈피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보장, 과다한 사교육비 감소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홍윤선기자 knews@

“농지 줄이고 복합용지 확대는 수질개선 역행”

새만금 환경평가 다시해야

최근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 종합 계획’에 들어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이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변경에 따른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부는 지난 1989년 11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농지 비율을 72%로 확정했고, 이후 현정부가 들어 72%에서 30%로 축소하는 대신 28%였던 복합용지를 70%로 확대했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토지개발이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경우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영향 평가가 원점에서부터 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8월에 시작한 새만금 매립면허 취소소송에 대한 2006년 대법원 판결도 새만금이 농지 개발을

전제로 한 판결로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인수위에서 복합용지와 농업용지 비율조정은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거뒀다.

당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개발에 가장 쟁점이 수질이고, 수질 때문에 10여년을 새만금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을 빚었는데 농지를 72%에서 30%로 변경하는 데 대해 환경부가 협의해 준 근거가 무엇이나”고 따지 는 등 수질문제를 거론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새만금 유역 2단계(사업기간 2011~2020년) 수질 개선 종합대책(안)도 수질관리 목표를 기존의 농업용수 확보에서 물놀이와 산책 등이 가능한 쾌적한 수변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 안이라면 정부는 농업용수 구간 인 중상류구간을 2020년까지 4등급

으로 하고, 도시지역인 하류구간은 3등급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근본 해결책이 제시 되지 않은 공여지책이란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수질개선에서 3도원을 쓴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새로운 것은 없다”며 “뒀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정부안에는 상류는 4등급인데, 하류를 3등급으로 한다는 것은 새만금을 바닷물로 희석하려는 공여지책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새만금의 담수화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며 초기 5년간 사업비 2조 8905억원의 80%를 오염이 심한 만경 수계에 집중 투자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판로 막힌 장미 농가 도와주세요”

전주시와 전주시 화훼연합회는 지난 18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수출용 장미 관측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일본 대지진으로 수출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장미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 제공>

단신

도, 26일부터 도청서 나무 무료 분양

전북도는 ‘제66회 식목일’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도청 동편 주차장에서 선착순(1인당 3그루)으로 나무를 무료로 나눠준다.

이번에 분양하는 나무는 가정이나 자투리땅에 심어 쉽게 가꿀 수 있는 ▲철쭉 1450그루 ▲매실 1450그루 ▲감(대봉)나무 1460

그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실과 감나무는 접목한 부분의 비닐끈을 풀고 줄기 30~40cm 높이에서 자른 후 접목부분이 지상부에 드러나도록 깊게 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정읍 기술직 공무원들 ‘봉사대’ 발대

정읍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지난 19일 소성면 춘수마을에서 ‘정읍사랑 기술봉사대’(이하 기술봉사대) 발대식을 가졌다.

정읍시장 건축과 직원을 주축으로 모두 37명이 참여하고 있는 기술 봉사대는 건축·전기·가스 등의 기술을 활용해 오는 11월 말

까지 매월 두 차례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불우세대 20세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성기 시장은 “따뜻하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힘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익산산림조합 녹색사업단’ 출범

산림분야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익산산림조합 녹색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지난 18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사업단은 취약계층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원 등 공공 녹지관리

를 지원하고 학교숲, 아파트 정원·조경수 관리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

김근섭 사업단장은 “오는 2013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고용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항 유연탄 부두 사업자 ‘대한통운’ 선정

군산항의 유연탄 부두 개발사업자로 대한통운이 선정됐다. 군산 해양항만청은 지난 17일 항만청 대회의실에서 심사를 벌여 단독으로 신청한 대한통운(주)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을 거쳐 오는 6월

착공해 2015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유연탄 전용부두는 연속 하역기와 사이로, 전용 운송차량 등이 모두 밀폐형으로 설계돼 분진 발생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